

연중 제29주일 복음 나누기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루카 18,1-8)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1) - 루카 18,1-8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2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5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6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여라.

7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누누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다면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피곤함이 사라진다면 누구나 매 순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향구함이 부족한 것은 이렇듯 기도의 즐거움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기도는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경험의 문제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 보면 기쁨의 기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비우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상상도 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시간을 내어 그렇게 한다면 기도를 이끌어 주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끄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힘이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감정이 복잡하더라도 그것을 제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재판관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과부의 청원에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만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청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 나는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향구히 기도합니까?
- ❖ 주님께서 귀찮게 여기실 만큼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6. 안건토의와 공지사항 전달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